

[목회자 모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2019. 1. 25. 이현래 목사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표상)이라(롬5:14).”

오늘은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이다. 표상이라는 말이 형상이라는 말도 되고, 어떤 성경에는 원형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원래 만들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을 따서 지은 것이니까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껍데기이다.

콩을 보면 깍지가 있다. 깍지는 하나하나 콩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속에 씨가 있기는 있지만 처음에는 거의 씨가 보이지 않고 깍지만 있다. 그 깍지가 있어도 씨가 안 되어버린 것도 있다. 그러면 빈 깍지가 된다.

형상이라는 뜻이 그런 것이다. 장갑을 예를 들었는데, 장갑은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손을 집어넣으면 딱 적합한 것이 되는데, 손을 넣지 않고 그냥 놔두었을 때는 정말 볼모양이 없다. 인간도 그런 것이다.

또 흙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도 형상을 지은 것이다. 형상을 지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출20:4).”는 말이 있다. 천주교와 정교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기독교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걸어놓지 않고 있다.

그것도 실재가 없으니까 형상을 만든다. 왜 형상을 만드는가? 실재가 없으니까 만든다. 있으면 만들겠는가? 종교마다 뭘 만든다. 왜 만드는가? 실재가 없을 때는 만든다. 사람은 실재가 없으면 껍데기라도 만든다. 인간 자체가 껍데기이기 때문에 껍데기를 만든다. 이상한 일이다.

진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가짜를 꼭 만든다. 진짜 웃긴다. 종교가 진짜가 없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 다른 것은 가짜가 있어도 된다. 더구나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우상을 섬긴다.

출애굽기에서 그런 현상을 보았다. 모세가 앞에 있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먹고 놀고 춤추고 했다고 한다. 눈에 뭐가 보이니까 좋아했다는 말이다. 사람은 뭐가 잡히지 않으면 헛것이라도 잡아야 된다.

위장이 비어 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고 먹고 죽는 것이라도 먹어야 한다. 펠벱이 쓴 <대지>에 보면 하도 배가 고프니까 흙을 끓여 먹는다. 흙을 끓여 먹고 살겠는가? 못 살지만 우선 배를 채워야 한다. 위장을 채워야 한다. 실재가 없으면 무엇을 만들어도 형상을 만든다.

교리 체계를 세웠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실재는 보이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니까 뭔가가 허물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기준을 세워보자는 말이 나온다. 그 기준을 세워놓고 지키고 살면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내용이 없는데 뭐가 되겠는가? 그냥 염불하듯이 외우는 것이다. 예배 시간마다 많이 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해서 줄줄 다 외운다.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소리이다. 우리가 말하는 속에 마음이 없으면 소리이다. 팽과리라는 말이 그런 말 같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역력한 혜택을 받았는가? 은혜로 말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전에 받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원망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다. 당연하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있는가? 없다. 아침에 밥 먹었다고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가? 먹었으면 그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다.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하겠는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자기도 거짓말인지 모르고 한다.

은사가 대표적인 것이다.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가 내 것인가? 내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없어진다. 그런데 없어진 줄 모르고 전에 했으니까 있겠지 하고 그 짓을 한다.

방언을 하는 것도 저절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저절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오도록 만든다고 한다. 옛날에 내가 서울 있을 때 보았다. 순복음 교회에서 성령대망집회를 했다. 매주 화요일에 최**목사가 인도해서 성령대망집회를 했다. 그러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 와서 받으라는 것이다. 찬송을 계속 부르고 손뼉을 치고 해서 분위기를 잔뜩 띄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방언도 한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매주 화요일에 거기에 모인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시킨다고 한다. 랄랄랄라 해서 방언이 나오도록 만든다고 한다. 그것도 가능하다. 김**목사가 가르친 대로 하면 ‘방언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된다고 한다.

우리 교회 정*성형제가 거기에 있다가 나왔다. 거기에 가면 방언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방언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병 고치라고 했으니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간다. 참 이상한 일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충만한 상태에 있다가 방언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되겠는가? 안 된다. 그래서 연습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만들게 된다. 그것이 이상이다.

실재가 없으면 뭐든지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를 채워야 한다. 우선 채워놓고 봐야 한다. 사람은 결국 우상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 사람 자체가 사실 우상이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우상이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아마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이 형상인데 뭘 또 만들겠는가? 나를 위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네가 형상인데 뭘 또 만드느냐는 것이다. 원래 형상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 껍데기이다.

받은 고추밭도 있고 가지밭도 있다. 그런데 거두어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형상이고 빈껍데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거두어가고 나

면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 살아보고 나면 참 좋은 것이다. 곡식을 심었다가 거두어가고 또 다시 심었다가 거두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왜 다 거두어가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냐? 이런 불만이 생긴다. 아담이 그렇지 않겠는가? 나는 왜 아무것도 없냐? 나는 뭐냐? 형상이라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교회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무엇이 되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무엇이 되려고 교회를 온다. 무엇이 되려고 절에 간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뭘 하라는 것인가, 뭘 하라는 것이 있어야 어떻게 하지, 뭘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내가 뭘 하라는 말을 안 한다. 뭘 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면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한다. 뭘 하라는 것인가?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뭘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뭘 하라는 말이냐고 한다.

어떤 사람은 뭘 하기 싫은 사람이니까 그것이 대단히 좋다고 한다. 교회를 가니까 뭘 하고 뭘 하라는데, 여기에 오니까 아무것도 하라는 것이 없어서 참 편하고 좋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다.

사람은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원래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뭐가 되겠는가?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뭐가 되겠는가?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 뭐가 되려고 생각하면 피곤하다. 인생이 못 산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예수처럼 살아보려니까 그것도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보려니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해보면 알겠지만 되는 것이 별로 없다. 아예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지 껌데기인 내가 뭘 하겠는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우리는 그냥 표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표상으로 만족하고 빈 밭이 되면 다른 씨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아주 좋다. 왜 나는 아무 것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가난하다.

그런데 늘 밭이니까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는가! 씨라는 것이 한 자리에 심어놓고 계속 있으면 다 자갈해져서 토종이 되어 버린다. 계속 비료를 넣어주고 해야 한다. 옛날에 산에 유실수를 심는다고 밤을 많이 심었다. 비료를 주지 않으면 도로 토종이 된다.

자살해져 버린다.

흠은 자기 스스로 뭘 만들어 낼 수 없다. 뭐가 와서 또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위치가 참 좋은 위치이다. 너무 좋은 위치이다. 인간의 위치가 껍데기로 만들어진 것이 너무 좋은 위치이다. 알맹이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큰 책임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로 되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다고 바쁜 사람을 어떻게 쉬게 해주겠는가? 그런데 예수께로 오면 편히 쉬게 해준다고 한다.

왜? 그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지 않을 짐을 뭐가 되려고 생각하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은 예수께로 가면 그 짐이 놓여 지니까 저절로 가벼워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라는 노래가 있다. 십자가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는 노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 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하라고 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하나님은 아주 좋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하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내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편하고 좋을 것이다. 그 두렵게 하는 하나님 같으면 믿지 말라. 왜 괴롭게 하겠는가? 자기가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괴로우면 자기 때문에 괴롭지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괴롭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기 좋아서 괴로움 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괴로움 당하는 데서 자기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자기가 괴로움 당하는 것을 왜 자랑하겠는가? 부끄러우면 자랑하겠는가? 자랑스러우니까 자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인데 괜히 나쁜 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주 고약한 분으로 만들어 놓았다. 걸핏하면 지옥에 보내고 불로 심판하는 분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런 짓을 하고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나에게 하

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놓고 지옥에 보내고 패고 하겠는가? 잘 생각해보라. 절대로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고 정말 좋은 분이다. 우리보다 더 좋은 분이다. 나보다 훨씬 좋은 분이다.

모두 자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고 물어본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는가?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내가 싫으면 살았겠는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싫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다. 싫은 것을 내가 억지로 해본 적이 없다. 다 좋은 일을 시키니까 하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갔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자기는 참말이지만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수고한 것이 없다.

땀이 안 나도록, 심지어는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되어 있다. 땀이 안 난다는 말은 수고롭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괜히 수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수고한 것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수고한 것이다.

야담은 그냥 오실자의 표상이다. 우리는 단지 표상일 뿐이다. 오실 자가 없으면 빈껍데기이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아직도 표상으로만 있으면 아직도 그냥 빈 그릇이다. 예수를 못 만나면 그렇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예수를 못 만나면 그냥 표상으로 있는 것뿐이다. 주인을 못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로 신랑을 못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예수를 못 만나면 그렇다. 왜냐하면 예수가 대답이기 때문이다. 왜 장갑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왜 장갑을 손가락처럼 만들어 놓았는가? 손가락에 끼려고 만들어 놓았다. 손가락을 만나야 비로소 장갑은 내가 쓸모가 있네,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네, 이렇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기 전까지는 나는 항상 빈 것이니까 항상 공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태복음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고 한다. 만일에 예수가 없었으면 아브라함도 그냥 쉬지 못하고 계속 가야 될 사람이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쉼이 없는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지옥이지 다른 것이 지옥인가? 참으로 우리가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좋았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혜택을 받아서 나도 남 못지않은 혜택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도 못 들어보았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데도 못 들어보았다.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을 정말 깊이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그리 좋은지 모르겠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수이다.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그 말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이나 100살에 이삭을 얻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닌가?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100살에 아들을 낳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100살 아브라함으로서는 절대로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아들을 주었다는 이 말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다.

나는 한계를 많이 느껴보았다.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는 한계를 느껴보았다. 한계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말이 나에게 솔깃하게 들렸다. 내가 한계를 느끼고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는데, 그 너머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자리에서 아들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솔깃하게 들어왔다. 그렇지, 이래야 살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가 끌려 왔던 것 같다. 나는 그때 예수를 알고 끌려 온 것이 아니었다. 그 자체가 나와 딱 맞아서 끌려 온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 문제는 조그마한 문제이고 아브라함은 큰 문제였다.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이다.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역사 안에서 볼 수 없는 사건이다.

내 문제는 거기에 대면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 문제는 다른 사람 같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나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지 다른 사람 같으면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헤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구원자가 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철저히 구원은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것이 없기 때문에 살리는 길은 바깥에서 오는구나. 나 외에 다른 데서 오는구나.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다 자기가 알아서 했으니까 남이 필요 없다.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자기가 한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스님들은 바랑을 지고 다닌다. 그 안에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 군인들 배낭 매듯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다. 밥그릇 숟가락이 다 들어 있다. 밥을 먹고 나면 닦아서 그 바랑에 집어넣는다. 절에서 누가 관리해 주겠는가? 자기가 다 관리해야 된다.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을 깨끗이 닦는다.

지금은 수도도 있으니까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밥을 먹고 나면 물을 부어서 손가락으로 그릇을 씻어서 마신다. 그러면서 밥풀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육도 가운데 아귀가 있는데 그것은 몸은 집덩이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이놈은 뭘 먹고 사는가? 하수구에서 설거지 하고 남은 물을 먹으려고 그 밑에서 입을 벌리고 살고 있다고 한다. 만일 밥풀이 거기에 들어가면 아귀 목구멍을 막아버린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짓이냐는 것이다. 깨끗이 씻어 먹어야 된다고 한다.

그때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밥을 먹으면 밥풀 하나도 안 남겨둔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대강 먹고 나가 버린다. 그러면 아귀가 목구멍이 막혀서 다 죽는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자기 생활용품 다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철저히 자립정신을 가르친다.

물론 그런 것은 좋지만 인간은 자기 한계가 있다.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 한계 밖에서 일해 주시는 분, 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내 하나님으로 적당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나대로 살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구원은 밖에서 온다. 창조도 밖에서 왔다.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 맞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 맞다. 그런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너무 맞는 말이다. 누군가가 창조했지 저절로 생겼겠는가?

100살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음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삶이 예수에게 와서 실재가 되었다. 예수가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늘 있는 일은 아니니까 막연한 일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냥 신화가 되고 말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실재가 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일이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내 일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일이 내 일이 되었다. 나는 100살에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내게 딱 맞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딱 맞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못 얻었으면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가? 불가능하다. 다말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조상이 되겠는가? 라합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이 예수에게 와서 열매를 맺는다. 아니라 함이 없고 다 예가 되었다.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

시대가 지나도 마찬가지이다.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바뀌지고 문화가 달라졌으니 까 하나님이 달라지겠는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가? 똑 같다. 단지 우리의 인식 기능이 달라졌으니까 좀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달라질 수가 없다. 진리가 바뀌질 수 없지 않은가? 이 실재가 없이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소용이 없다. 연구 방법만 많지 실재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밭이 없는 사람이 농기구만 잔뜩 준비하면 농사가 되겠는가? 밭이 있어야 농기가 필요하다. 밭도 없는데 농기구만 잔뜩 만들어 놓았다면 짐만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호미 하나만 있더라도 밭이 있는 것이 낫다. 농기구가 잔뜩 있고 밭이 없는 것보다 농기구가 하나밖에 없어도 밭이 있는 것이 낫다. 설사 호미가 없더라도 밭이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우리는 지금 영원 안에서 시간을 살고 있다. 영원이라는 큰 우주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다.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버리고 해탈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버리겠는가? 버리면 인생이 아니다. 어디로 버리겠는가? 영원과 시간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 안에서 시간을 할당 받은 사람

들이므로 시간을 잘 살아야 한다. 영원히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 안에서 할당 받은 것이 시간이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인터넷을 보니까 재미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한정한 이 우주 공간에 봉이 김선달이 나와서 어딘가에 자기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에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놈보다 몇 천배나 머리가 좋은 놈이다. 인터넷이 그런 것이다.

주인이 없는 공간에서 어떤 사람이 공간을 시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무한한 공간 속에서 이 시간을 할당 받았다. 내 일생(인생)을 할당받았다. 자기가 쓰기에 달렸다. 잘 쓰면 얼마든지 풍부할 것이 나오게 되고, 잘 못쓰면 아무 것도 안 나오게 된다. 똑 같은 컴퓨터인데 나 같은 사람은 몇 가지 못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컴퓨터 안에서 별 것을 다 한다.

우리는 형상이고 시간 안에 살지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

이 표상!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브라함은 예수의 표상이었다. 이삭은 예수의 표상이었다. 그 길로 따라와야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길로 따라와야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엉뚱한 것은 연구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도움은 되겠지만 소용이 없다. 우선 길을 딱 알고 와야 한다.

아브라함에서 예수에게로 딱 연결되는 이 길이 있어야 되지 이 길이 없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은 그것부터 이야기해놓았다. 마태복음은 족보 때문에 지루해서 사람들이 못 읽는다고 한하는데 그것을 이야기 해놓았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우리는 표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길로만 오면 예수와 연합한다. 예수와 연합하면 알맹이가 딱 들어온 것이다. 참 인생이 된다.

그런데 ‘참 인생이 되면 뭐하느냐?’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곤란하다. 참 인생이 되었으면 됐지 참 인생이 되면 뭐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인생을 찾았으면 그것이 영광이다. 잃어버린 인생을 찾은 것이다. 이것이 죽었던 사람이 되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다시 살면 뭐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인간이 답답하려면 끝없이 답답하다.

아담도 그랬을 것이다. 나는 흙으로 지어서 혼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는 뭘 합니까? 틀림없이 이랬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와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훌쩍 빠져 버린 것이다.

뭐가 되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었다. 지금 된다는 곳에 가 있다. 그런데 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전능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전능자를 만나서 자기는 뭐가 되겠는가? 늘 되겠다고 하더니 안 된다고 했다. 자기도 한계를 느낀 것 같은데 어떤 한계가 오니까 안 된다는 소리만 했다.

가만히 있으면 밖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데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전능자에게까지 찾아갔다. 우리 교회 형제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전능자를 만나야 되니까 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이 돈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되어서 그 모양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 뭐가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아담도 뭐가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람의 자리만 찾으면 모든 것이 되도록 되어 있지 또 다시 뭐가 되겠는가? 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영원히 밭이다.

그런데 그 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또 얼마나 풍부한가!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부는 얼마나 밭을 귀하게 생각하겠는가!

우리 동네에 할머니들이 몇 사람 있다. 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 평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 너무 땅이 귀중해서 놀리면서도 주지 않으려고 한다. 땅은 농부에게 가면 아주 귀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농사를 지으실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은가! 안 지으면 쉬고 논다. 그런데 쉬고 놀면 잡초가 나 버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계속해서 경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나 버린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우리 인간은 표상이다. 영원히 표상이다.

표상이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표상은 영원히 표상이다. 그런데 실재를 만나면 완성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것이 있구나. 내가 이래서 있구나. 인생은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답 된다. 대답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 뭐가 되려고 하니까 대답이 안 된다. 되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죽으면 그만인데...’ 이러면 끝난다.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마디로 끝나게 된다. ‘죽으면 끝이 아닌가?’ 이러면 끝난다.

그런데 우리 형상은 ‘죽으면’이 어디 있는가? 만날 똑 같은 것이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고 하였다. 죽으나 사나 똑 같은 것이다. 형상이 죽고 살고 하겠는가? 아는 사람들 못 만나니까 좀 섭섭해서 그렇다.

나도 지금 죽을 날을 받아 놓고 있다. 가만히 계산을 해보았다. 뭐가 제일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니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이 제일 문제이다. 여러분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요즘에 그런 지혜가 생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90:12).”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날짜를 계수하고 있는 중인데 자꾸 지혜의 마음이 생겨난다. 전에 없던 지혜이다.

형상으로 만족하자. 형상으로 만족해야 후회가 없다. 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초창기에 왔던 형제들도 처음에는 뭐가 되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있어 봐도 안 되었다. 좋기는 좋은데 뭐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좀 방황하는 것을 보았다. 말은 안했지만 속으로 지금 뭐가 되려고 하다가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실재를 만나면 되는 것이다. 처녀들이 단장한다. 성형수술 등을 한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신랑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신랑을 안 만나려면 무엇 하려고 단장하고 다니겠는가? 좋은 신랑을 만나려는 것이다. 좋은 신랑 만나면 된 것이다. 그렇게 단장하던 사람이 시집가서 애기 낳으면 퍼져서 배를 쑥 내밀고 다니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 애기를 업고 있으면 코 흘리니까 등에 묻어 다닌다. 언제 날마다 옷 갈아입고 다니겠는가? 신랑을 잘 만나면 된다. 여자는 신랑을 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표상으로서 인간은 주인을 잘 만나면 다 해결된다. 좋은 농부를 만나

면 다 해결된다. 여자들이 말을 더 잘 알아듣는 이유가 있다. 이런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듣는다. 남자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다. 결혼을 하고나서 후회하는 남자가 더 많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할 걸 하는 남자가 더 많다.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다가도 막상 결혼하자고 하면 남자들은 주춤한다. 난 결혼 못하겠다는 것이 남자이다. 그런데 여자는 막 애를 쓰다가 결혼하자고 하면 그때부터 살 판 나는 것이다. 형상으로서 인간은 결혼하면 살 판 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므로 남자가 되면 안 된다.

이번에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 절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잘되더라는 것이다. 즉, 잘 깨달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덜컥 겁이 나더라는 것이다. 지금 나는 볼 일이 많은데 지금 성불해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것이 남자들의 생각이다.

지금 결혼해 버리면 연애는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난다는 말이다. 그 스님이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한 동안 헤맸다고 하였다. 내가 지금 성불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데, 나는 할 일도 많고 좋은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바짝 들었다고 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처음에는 좋아서 왔다. 무슨 동기에서 왔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고 십자가 이야기나 나오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 생각이 난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해서 주춤하게 된다.

말을 깊이 못 알아들으면 주춤하고, 잘못하면 다른 길로 빗나가서 도사의 길로 간 사람도 있다. 자기가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

진짜로 좋아해야 한다. 미치도록 좋아해야 그런 것을 모르고 들어오지 시원찮게 알아버리면 들어올까 말까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조금 들어왔다가도 이러다가 내 인생이 없겠다 싶어서 나가서 다른 짓을 한다. 우리 주변에 몇 사람이 그랬다. 도사가 되어 버렸다. 들은 것은 있으니까 도사가 되기 쉽다.

우리는 표상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영광이다. 표상이니까 하나님까지도 들어오실 수 있다. 얼마나 영광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신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보좌 우편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보좌우편이다.

요한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면 실상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어린 양만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린 양의 보좌이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더라고 한다.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리겠는가? 생명 강물이 보좌에서 흘러내리는데 그 보좌에 앉았으면 됐지 뭐가 더 기대할 게 있겠는가? 사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시다. 보이는 것은 사람뿐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도 예수가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우리는 표상이구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이것은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하나님께 ‘왜 나를 하나님으로 안 만들어 주었습니까?’라고 하면 이런 미친놈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말이 되는가?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의 형상이 되다니 황공무지로소이다라고 해야지 ‘왜 나를 하나님으로 안 만들어 주었습니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내 한계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형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고, 아무 것도 못 할 것이 없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한계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형상이 되지 한계가 없다면 형상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축복이다.

‘어디다 써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써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형상으로만 나타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면 뭘 더 바라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구별할 수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였다. 우리가 그만하면 되었지 뭘 더 바라겠는가? 흠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형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좋은지!

성경처럼 원색적이면서도 확실한 말씀이 없는 것 같다. 무엇으로 인간을 더 확실하게 정의하겠는가? 머리로 해놓은 것을 보면 머리만 아프지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다.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 소가 장화신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기름 덩어리라도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은 수없는 말을 해 놓았는데 아무 것도 거둘 것이 없다. 인간이 연구를 해보았자 곡괭이를 좀 더 잘 만들뿐이다. 호미를 괭이 만들고, 괭이를 쇠스랑 만드는 이야기이지 실재는 아무 것도 없다.

성경 말씀은 아무 것도 아닌 것같이 쓰여 있지만 그것이 생명이다. 너무 정확하다. 한 치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다. 갈수록 더 그렇다. 더 확실해진다. 참 이상하다.

내가 마태복음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한 번 하고 더 안했지 싶는데 이번에 김목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들으니까 너무 새롭다. 말씀이 새로우니까 또 보면 새롭고 또 보면 새롭고 늘 그렇다.

우리를 통해서 나님 말씀이 자꾸자꾸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깊은 데 것이 나와야 된다. 우물은 깊이 팔수록 물이 좋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개발하지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다.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다.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있다. 1미터 우물을 먹었으면 갈 때는 2미터 우물은 파 놓고 가야 한다. 다음 사람은 2미터 우물에서 먹으라고 말이다. 그 다음 사람은 거기에서 연결해서 1미터를 더 파면 3미터를 파는 것이다.

만일 초대교회 이후로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왔을 것이다. 너무 명백해져서 말이다.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빠져서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있고, 종교개혁 때를 그리워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그것이 언제인가? 500년 전 일을 왜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가? 2000년 전의 일을 왜 지금 부러워하겠는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이 언제인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그 전기를 얼마나 개발해 놓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왜 예수는 개발이 안 되었는가? 다 안다고 한다. 미국 사람 만나 보니까

자기는 다 안다고 한다. 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다. 자기가 알기는 뭘 알겠는가?

우리는 경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라고 하셨다. 지키고 경작하라고 하셨다. 땅은 경작해야 된다. 땅은 경작해야 뭐가 나온다.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더 좋은 것이 나온다.

우리가 일구어야 할 땅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여 다른 사람이 더 먹기 좋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에는 전도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도 안 해도 되도록, 너무 쉬워서 전도를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개발할 의무가 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브라함은 예수의 표상이다.

표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죽어야 하지만 표상으로서 아담은 죽을 수가 없다. 아담을 또 만들 수는 없다. 표상은 그대로 있다. 선악과를 먹은 그놈만 죽는다. 그놈만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표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회복되면 도로 원점이다.

유리병과 플라스틱이 다른 이유가 그것이다. 플라스틱 병에는 무엇을 넣어 두면 그것이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빈 그릇이라도 냄새가 난다. 그런데 유리병은 아무리 더러운 것을 넣었을지라도 씻어 버리면 도로 원점이다. 유리가 좋은 이유가 그것이다.

유리는 3000도에서 녹여 만든 것이고, 플라스틱은 120도에서 녹여 만든 것이다. 플라스틱 그릇은 김치 같은 것을 담아 놓으면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난다. 아무리 씻어도 안 된다. 햇빛에 말려야 된다. 그런데 유리그릇은 간단하다. 씻어 버리면 원점이다. 항상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리그릇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릇으로는 본차이나 이상으로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자리만 회복되면, 위치만 회복되면, 언제든지 좋은 병으로 남아 있게 된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저주하거나 그렇지 않다.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아담은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